海岸의 利用과 管理 〈2〉

楊 寅 台〈江原大 土木工學科 敎授〉

해양 자원의 배분

해안 생태계의 파괴가 감소한다면 우리는 해양 자원의 이용방법을 천천히 변화시켜야 한다. 해안의 자연 생태계의 보호활동은 알고 있는 문제를 문서화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큰 공동체에서 해양 자원 이용을 감소하기 위한 규정, 동의, 이행 여부의 관찰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이다. 해양 생물학자, 해양 과학자, 생태학자는 복잡하고 변화하기 쉬운 해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회학자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정부 행정에 의한 중요한 실질적 영향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 부처의 창설이나 새로운 법률의 통과는 이들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공적인 제도나 규정이 적절히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몇가

지 중요한 일이 착수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일의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와 단체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처리의 중립성을 정부의 권한과 힘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채택된 어떤 해안정책 내용은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것이다. 사람과 해양자원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부와 법규에 기인된 이러한 처리는 현재의 우리행동양식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수립과 정부가 이것을 실행하는 데 어떤 현실성 없이는 힘든 문제이다. 사람들은 해안의 이용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인구의 절반이상이 해안에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적절한 공공정책은 넓은 해안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오락시설, 산업지역을 전용하려는 사회적, 경제적 압력을 분명한 이해 없이는 수립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해안지역의 관리는 확실한 방법이어야 한다. 해안 보존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이 될 수도 있다. 특별히 잘 조직된 단체의 사람들의 이용은 쌍방이 높은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해안이 해양의 일부분이라는 분리는 해안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있을 수 없다. 해안이 많은 손해를 끼치는 육지의 일부이라면, 대중적인 관심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활동이 변경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해안과 육지 사이에서 선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해양자원의 한계를 넘는 광범위한 이용요구가 나올 것이다. 해안의 수용능력이 기술적인 개발과 효과적인 관리로도 증가할 수 없다면, 수중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해안환경과 유사한 육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해안지역 관리부서는 해안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독점적일 수는 없다. 행정가에게 결정적이며 확고한 규정을 줄 수는 없다.

해안지역의 이용에 관한 생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경제적 가치의 애용과 상호작용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특정 가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단체의 영향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지침이 변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될 것이다. 해안지역에 대한 정책의 공식화는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법률제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안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를 거쳐 어떤 정책이 입안되든지 간에 상충되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될 것이다. 그중 하나는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 가치간의 넓은 선택이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사용가능한 자원을 선택하고 그 자원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해안지역 관리의 성공여부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처리능력과 활동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에서의 정부단체의 행정능력에 좌우된다. 이는 방법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평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해안자원의 공정 분배, 적절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한 법률이나 정책의 결정등이 설정되

어야 한다.

해안지역에 대한 관리와 계획의 설정

우리의 해안지역에 대한 장래 관심사는 궁극적으로 해안자원에 관련하여 취해질 활동에 대한 영향 또는 효과를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훈련을 통한 정책, 프로그램과 제도의 제정을 말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볼 때, 해안지역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과 제도는 '해안 지역 관리'라는 부문아래서 일률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용어는 전통적 경제가 해안지역 이용에 있어서의 이용규제와 관련단체 설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세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안지역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해안지역에 대한 여러 정치적 관심사와 권력구조는 해안의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입법의 중복은 지침의 혼란과 일관성의 결여에 대한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전통적인 자원관리 또는 계획에서는 개별적인 하위시스템을 운용하여 토지, 물, 침수지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우리는 해안지역을 그 지역에 특유한 생태학적인 측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자원관리를 위한 자연시스템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 지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에 개별적인 단위의 개발(예를 들어, 핵발전소 또는 그밖의 공장단지의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의 주안점은 우선 지역적인 수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적인 영향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그 대표적 예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초대형 유조선의 접안을 위한 해안 시설물의 개발 또는 깊은 수심을 갖는 새로운 항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설물의 직접적 효과는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국가 수요의 예측에서 연료에 대한 필요성은 국가 전반에 걸친 것이고 새로운 시설물의 건설로 인한 혜택은 국가의 전역에 걸쳐 발생한다.

그 지역이 개선될 수 있는 가와 같은 과거 전통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과거의 해안지역에 대한 이용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장래의 해안지역관리를 위해선 필수적이다. 해안지역 관리는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절차이다. 해안지역에 대한 이 정해진 목적은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자연질서의 질과 범위를 보장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명시화된 또는 설정된 우리의 경제, 사회와 환경 목표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최상의 사용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해안지역 관리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시스템으로서의 해안지역 개발과 이해, (2)최대의 사용을 위한 동태적인 계획수립에 이러한 지식의 이용 (3)계획의 이행과 추진.

이 구조내의 관리기능들은 자원의 배치, 우선순위의 책정과 규제, 예를들어 권장, 가격조절과 같은 기타의 관리를 위한 전략을 통한 자원의 적극적 사용을 기본원리로 한다. 배치과정에는 다양

한 해안지역 자원의 장래사용을 위한 계획개발, 그리고 배치 의사결정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자원의 목록과 분류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시스템이 얼마나 기능를 잘 발휘하는가를 평가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해안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이러한 요구에 대한 가치와 우선권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관련하여 해안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범위가 한정된 지역내에서 가용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위와 사용이 조화되지 않는다면 일종의 취사선택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사용상의 손실에 대한 통고를 받아야만 한다. 복잡한 절차에서는 독점적 사용을 위해 할당될 해안지역 결정과 사용상의 타협적 조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업개발과 보존은 양립되지 않지만 이 양자는 해안지역시스템 사용상의 목적이 된다.

문제의 범위에 포함된 보통의 자원은 정부기관에 의한 해안지역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근본적인 관리문제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해안지역에 한정된 것 만이 아닌 중앙집권과 분권화에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고위층은 중앙집권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더욱 총체적인 시각, 더욱 객관적인 사고,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더욱 큰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지방분권화로 갈수록 정부 하위층이 문제인식에 더욱 친숙하고, 더욱 단편적인 견해를 가지며, 결정이 좋건 나쁘건 그 효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상위정부가 자신의 의사결정 욕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목적한 바를 희생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 할 때, 이상적인 방법의 하나는 극단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양한 등급의 행정기구가 관련된 해안지역 내에서 권력을 분배하기 위해선 권력위임의 원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 원리하에서 해안 의사결정은 문제의 범위에 적합한 하위등급의 지방정부가 받게되지만, 이 의사결정은 반드시 계속적인 상위등급의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목표와 제한에 일치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제한은 일반적으로 허용 범위내에서 지속되는 지방의사의 외부효과를 보장키 위해 공식화된다. 권련 대표위임의 원리와 부합하는 실행시스템, 그리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예상효과를 예견할 수 있는 최하위 등급 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정책 구조의 규정과 외부적 여건의 고려는 반드시 상위등급에서 담당해야 할 바이다.

해안지역 관리의 시스템 고찰

과학기술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는 전례없는 범위로서 확대된 환경적인 파괴를 볼 수 있다. 비록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 필요 할지라도, 현재의 추세는 복잡한 사회환경 관리 시스템의 개발은 주위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는 위험없이 장기간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적합한 형태의 정보를 나타내고, 아주 다양한 사회와 환경적인 데이타의 취급이 가능한 분석모델의 개발 실

현과 필요가 인식되어야 한다. 그와같은 분석과 표현에 대한 가능성의 개발은 슬기롭게 장기간에 걸쳐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하나의 구성요소라 생각된다. 또 다른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과거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하는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합리성은 결정자들의 기본 가치에 속하는 상대적인 문제이다. 입법자에 의해서 채택된 우선적인 가치는 전국민이 해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집약적인 해안지역 이용에 따르는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취급하지 않는다. 더 좋은 방안이 긴급히 요구된다.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접근은 시스템 분석의 적용이다. 많은 특색과 불확실성에 의한 해안지역 관리는 운영연구 전문가가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할 문제에 속한다.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상의 골조가 된다. 즉 사회적인 관리목록, 물리적인 환경모델, 시뮬레이션 경험 및 시스템 분석 접근의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컴퓨터이다.

실제로 취급되어지는 필요한 자료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좋은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근사값이나 판정 정보로서 충분히 과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보다 훨씬 적게 요구된다. 생태학과 사회경제적인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세련된 관리는 적어도 아주 장기간의 목표이며, 시스템 접근의 진보적인 도입과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한 장비조달은 바로 시작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실행상의 관리향상 결과가 확실해야 한다. 시스템 접근의 출현은 감지분석 활동의 다양한 수준으로 그것들을 분석하며 방대한 정보체들을 요약한 값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기술의 이용은 모든 단계의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실되는 우려를 낳는다. 결론적으로 아주 정확한 항목과 절차는 각각의 언어 - 예를들어 생물학, 물리학, 공학, 사회학에서 실제적인 전문가에 의한 계속적인 정밀조사와 연결되어야 한다. 향후 10년동안에 지금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의 통합이 해안지역관리의 컴퓨터 요구 또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데이타에 대한 가능한 많은 부분의 것이 모두 제공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적인 추세와 연약한 환경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기술은 그 자체로서 모든것이 아니라, 표면상의 압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론

지역적 구획도표, 복합적 운송계획들, 상공회의소 광고, 조세정책 및 상업상의 개발은 현재의 정책 목표, 각 목적들과 해안지역의 이용을 위한 목적들에 공헌했다.

해안지역은 환경적인 해역들로서 간주되어진다.

우리는 자본상의 이익을 배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익도 감소되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해양자원들의 재생능력이 파괴되지 않고 환경적인 산물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안지역의 관리는 크게 보아 국가적인 관심사이다. 인구의 분포, 토지, 대기,

자원, 에너지, 오락시설지역 등을 포함한 천연자원들의 이용과 분포에 국가적 목표 혹은 신뢰할 만한 정책의 결핍은 해안지역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서의 모든 제안사항들의 기본적 목표는 인간들이 생태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개발과 평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제안〉

(1)미래의 모든 해안지역의 이용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국민들에 의한 계속적인 인적자원들의 이용을 위한 공급과 자원생태계 유지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앙정부의 관리책임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2)임무수행능력은 국가적 계획설계에서 중앙정부의 협조가 있어야하고 지방정부의 해안지역 관리에 대한 모델을 전개시켜야 한다.

(3)합법적인 제도의 개발과 절차는 해안지역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결정절차와 법의 현 상태에서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고려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새로운 해안토지와 해수 이용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해안개발의 규정에 대한 대안적 수단은 개인재산을 제외한다;

· 육지, 해수 및 해저의 개발활동을 위한 행정상 법규와 상태개선;

· 행정 및 사법상 절차로서의 행정부, 각종단체들 및 개인들의 확대접근;

· 해안의 환경영향을 야기시키는 활동들에 관한 지방행정부의 결정을 호소하기 위한 환경게시판의 합법적 설치;

해안과 환경현상들에 관련된 분쟁에서 국가기관이나 국민 개개인을 초월하는 폭넓은 사법권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환경 담당조정기관 설치;

(4)지역 해안 연구센터의 설치는 합법적인 연구, 사회과학, 자원과학을 통합하고 개발하는 것과 정부단체와 대중들에게 해안지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센터들은 해안자원의 목록을 제공하고 관리기술들의 평가를 도우며 그 지역의 기본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있는 연구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5)모든 생태계의 구성에 있어 그들 환경의 본질적 구성요소와 동물, 식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해안지역 보호의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몇몇의 해안지역은 해안지역의 보호를 위해 제약이 가해지겠지만 다른 해안지역은 자연상태와 조화가 가능한 오락시설을 위해 개발될 수도 있다.

〈구체적 제안〉

1. 자연적이며 변경된 해안체계의 새로운 기본 생태학적 연구들에 첨가된 다른 사회경제학상 자료와 소유권 및 토지이용 형태를 인구통계학적 연구들을 포함하는 보충적인 해안자원 목록들과 비교할 수 있는 조사의 확장과 가속화.

2. 선택적 행동들의 환경평가에 의한 해안지역의 관리개선과 해안지역의 환경구조향상 및 활동들의 환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한 진보된 예측모델 개발.

3. 개선된 환경영향 보고서들은 그것들이 환경적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안지역내 구조와 부가된 활동 또는 개개의 새로운 것들을 위해 준비 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만들어진 의사결정과 같은 보고서의 준비, 세부화, 이용에 대해 좀더 엄격한 요구가 뒤따른다.

4. 기초적인 생물학, 화학 및 물리학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해안지역내 문제형태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a. 해안 생태계의 안정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영양분과 위험한 화학물질의 이동, 확산, 분출 감독

b. 오염물질의 유입단계의 감독, 특히 염화탄화수소, 기름 및 중금속

c. 고형물질 폐기의 영향

d. 생태계와 유기체상 치사량에 가까운 오염물질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향

e. 각종 폐기물들의 해안지역의 자정능력

f. 면역학과 세균학 연구

g. 황폐화된 생태계의 재처리

h. 해안지구 생태계의 생산성과 다양성, 복원성 영향인자

i. 바람직한 종들과 개체들의 생산증가를 위한 기술

5. 해안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합법적 측면의 연구는 다음 문제들과 같은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a. 습지들과 해안지역내 올바른 고유성의 발휘

b. 법률의 행정상 및 사업상의 실행

c. 해안선 개발에 따른 사항과 함께 그것들의 해석과 제정법에 따른 지침

d. 해안지역의 정치적 압력과 공동의 관심사

e. 지방 및 국가 단위의 해안지역을 위한 처리

f. 해안지역 활동들의 관리 실행 효과의 평가체계

g. 생태학적 영향을 포함하는 해안지역에서의 궁극적인 이용의 경제적 이득 분석

h. 계산적 입출력에서 정책을 위한 경제 모델

i. 자원평가에서 혼합사항들 및 경제인자

6. 사회환경적, 경제 및 합법적 영향상의 연구.

a. 구조물 부지, 해안에서 떨어진 발전소구조물 및 해안의 관리

b. 폐기토의 준설과 매립

7. 해안 생태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경고해 줄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감시체제의 창설.

8. 해안지역 자원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방법들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설치 목표는 장래의 우리주위의 유산관리를 위해 다음 세대의 자연, 사회과학자를 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해안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들을 깨우치는 중요한 수단이다.

〈효율적인 정치적 책임을 배분하기 위한 제안〉

9. 중앙정부는 국가적 해안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최신 중앙기구들중 하나에서 확립될 것이고 해안지구 활동내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게 되어야 한다.

10. 해안을 정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와 우선적 책임을 지는 독립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관리계획은 행정적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게 될 것이며, 완전한 자연체계로서

해안지역을 고찰하게 된다.

법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극은 해안지구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된다.

정부는 정책의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충고가 반영된 해안지역 계획 지침서내에 지방정부의 계획 및 설계를 전개해야 한다.

11. 해안지역의 관리에 관련된 모든 정부단체에 의해 평가된 조사 또는 감시에 기초하여 수행기준과 환경적 품질표준을 적용한다.

12. 해안지역 및 외곽 주거지역의 중점관심사항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환경적 상태 또는 그것의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해안지역에 대한 의사결정인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제안한 자료를 가지고 논쟁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고려되어야 한다.

13. 해안지역에서 핵연료 및 다른 연료를 포함한 에너지의 이용과 지역계획의 개발에서 산업계, 정부, 대중단체들의 합의는 이러한 에너지가 해안지역 안에서 개발될 때와 밖에서 개발될 때의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야 한다. 시민들은 환경의 보호와 에너지의 수요라는 양측의 조건을 조정한다.

14. 모든 차원의 정부개발 공사는 공동의 목표성취를 위해 물속의 토지뿐만 아니라 육상과 해상의 항공을 이용한 관리방법과 기술을 통하여 해안지역의 운송용량 증가와 방법을 고찰해야 한다.

15. 연안어업의 현 관리와 현존하는 계획의 정책과 비용의 평가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조사감독 이 요구는 어업에 대한 제한된 참여의 장점과 정부의 후원하에서 효과적인 어업관리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를 포함한다.

국가적 지배를 벗어난 공해상의 어장보존은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국내 어민이 해안자원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는 보호되어야만 한다.

16. 정부는 지역적 해안지역 연구센터의 설립을 주도해 나간다. 그렇지만 학술재단, 개인적 활동기업, 정부, 정부의 주요부서는 해안지역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과학, 법률, 사회과학에서 기초분야와 응용분야의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

17. 적당한 자금이 그의 결과가 분석되고 출판되어져야 할 정보를 개발해온 활동을 위해 제공되어 진다.

〈특별 이용을 위한 제안〉

18. 간만의 차이가 있고 해수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포구지역들의 보존은 균일한 생태학적 특성들을 위해 가치가 있다. 그러한 지역들은 사적 또는 공적인 해안지구 활동들로부터 엄격히 제한되어져야 한다.

19. 해안지역내에서의 활동의 조절은 단지 근해수의 효과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먼 바다와 대양의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확실히 천공, 준설 그리고 매립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으로 부터의 항공과 해운은 해양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는 원인이 되므로 해양 생태계의 심각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